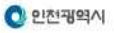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5월 20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담당자	• 매립지조성담당 최명환 ☎440-8281 • 담당자 현승주 ☎440-828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5.20.(목)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영흥 현장 소통
본격화...인천에코랜드·영흥발전 논의
- 20일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 영흥 방문, 지역 민심 경청 -
- 간담회 통해 인천에코랜드 안전성 및 영흥 발전 계획 전반에 대해 대화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가칭)인천에코랜드가 입지할 영흥도를 방문,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첫 현장소통에 나섰다.

인천에코랜드의 안전성 및 영흥 발전 계획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논의한 자리로, 박 시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0일 오후 영흥 늘푸른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영흥 지역 발전 계획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영흥 쓰레기매립장건설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와 이장단, 노인회, 부녀회 회원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장정민 웅진군수와 시·군의회 의원들도 함께했다.

박 시장이 현장방문 차원에서 영흥을 들른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인천 에코랜드 조성에 대해 주민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쓰레기 독립 선언과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주민 여러분과 만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며 “영흥 주민 분들의 걱정은 풀어드리고, 기대는 높여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코랜드의 안전성과 영흥 제2대교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차질 없는 지원 추진을 위해 올해 추경에 용역비 12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흥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매립시설 견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천이 온 대한민국이 부러워할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흥 주민들께서 인천에코랜드를 품어주시는 것에 달려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틈날 때마다 영흥에 들러 대화하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대해 향후 마련하게 될 ‘영흥발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